

Study of classification period between *Araliae Continentalis Radix* and *Osterici Radix*

Suk-Hoon Kang, Ok-Hwa Kang and Dong-Yeul Kwon*

College of Pharmacy and Wonkwang-Oriental Medicines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ity, Iksan, Jeonbuk, 570-749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time when the *Araliae Continentalis Radix* and *Osterici Radix* were classified into different divisions as the period were not known to oriental medical science in Korea. It could be said that the *Araliae Continentalis Radix* and *Osterici Radix* had been recognized the different shapes since Sui-Tang eras and they had been differently used in their shapes and effects as separated medical plants since Song-Yuan eras. This thesis also presented the effects and shapes of *Araliae Continentalis Radix* and *Osterici Radix* as well as showed prescriptions and the uses of them in each dynasty of China.

Key words : *Araliae Continentalis Radix*, *Osterici Radix*, Different divisions

서론

獨活은 오가과(Araliaceae)에 속하는 쌍떡잎식물 다년생 초본으로 땃두릅, 땅두릅, 멧두릅 이라고도 한다. 獨活은 辛, 苦, 微溫하며 腎과 膀胱에 歸屬되고 祛風濕, 止痛, 解表의 작용이 있어 風寒濕으로 인한 痹證과 表證을 치료하고 더불어 少陰頭痛에 효험이 있다.

羌活은 산형과(Umbelliferae)에 속한 多年生 本草인 羌活 및 동속 近緣植物의 根 및 根莖이다. 羌活

은 辛, 苦, 溫하고 歸經은 膀胱과 腎經이며 解表散寒, 祛風勝濕, 止痛의 작용이 있어 風寒感冒, 風寒濕으로 인한 痹證과 頭痛을 치료한다.

두 약물의 동일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Table 1. 참조)

두 약물은 效能이나 適用症에서 보면 유사한 점이 있으나 약의 性質, 作用部位, 效能면에서 차이점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논문이나 서적에 두 약물의 產地, 形態, 效能으로 어느 시기부터 분류가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獨活과 羌活의 분류시기를 產地, 形態 및 效能으로 정확히 구분하여 보고자 하였다.

* Correspondence: Dong-Yeul Kwon, College of Pharmacy and Wonkwang-Oriental Medicines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ity, Iksan, Jeonbuk, 570-749, Tel: +82-63-850-6802; E-mail: ssimi@wonkwang.ac.kr

Table 1. 독활과 강활의 비교표

약품명	동일점	차이점
獨活	효능 : 祛風濕, 止痛, 解表	藥性이 비교적 緩和함, 發散力이 羌活보다 약함, 下半身の 風寒濕痺에 사용함, 少陰頭痛에 효과가 있음
羌活	적응증 : 風寒濕으로 인한 痺證, 表證, 頭痛을 치료함	藥性이 비교적 猛烈함, 發散力이 강함, 上半身の 風寒濕痺에 주로 사용함, 風寒濕으로 인한 頭痛에 효과가 있음.

본 론

1. 兩漢時期

獨活은 《神農本草經》에 羌活, 羌青, 護羌使者로 상품에 기재되었고, “風寒의 침입으로 인한 病, 金瘡으로 인한 痛症, 奔腸, 癰瘡, 女子疝瘕를 치료 한다” (1).¹⁾고 서술하였다. 하지만 羌活은 獨活의 異名으로만 기재가 되어 있을 뿐 다른 언급이 없었다. 이는 漢代에는 獨活과 羌活이 분리되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당시에 두 약물을 혼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魏晉南北朝時期

魏晉南北朝時期에 陶弘景이 일설에 “이 州郡縣은 모두 羌活이 나오는데 羌活은 가늘고 마디가 많고 軟潤하며 그 성질이 매우 猛烈하다. 益州北部, 西川에서 나오는 것은 獨活인데 色은 微白하고 虛大하다 (2).”²⁾ 라고 하여 羌活과 獨活의 產地와 形態가 다름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자신의 저서인 《名醫別錄》에 “모든 賊風을 치료하고 모든 關節의 風으로 인한 痛

症에 新舊를 不問하고 사용한다(3).”³⁾라고 기재 하였다.

이것으로 隨梁 時期부터 羌活과 獨活을 形態와 產地로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지만 효능 면에서는 이 시기에 도 확실한 구분이 없었음을 보여 준다.

3. 隨唐時期

隨唐時期에는 《藥性論》과 《新修本草》에서 獨活과 羌活을 產地와 形態 뿐만 아니라 效能에 대해서도 더욱 더 자세히 구별하였다. 먼저 《藥性論》에서는 “獨活은 모든 風濕冷을 治療하고 氣가 上沖하여 생긴 喘逆, 皮膚 가려움증, 手足의 痲痺과 痛症, 勞損과 風毒으로 인한 齒痛을 治療한다”고 하고, “羌活은 賊風으로 인한 失音不語를 治療하고 가려움이 심한 血癩에 效果가 있고 팔다리를 잘 움직이지 못하게 失顏面痲痺, 半身痲痺症에 效果가 있다(4).”⁴⁾ 라 하여 두 藥의 效能을 구분하였고, 《新修本草》에서는 陶弘景의 주장을 실었고 “羌活은 마디가 가늘고 약하다……두 藥이 용도는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르다(5).”⁵⁾ 라 하여 產地와 形態가 다름을 기술하였다.

이 시기에 獨活은 《備急千金要方》과 《外臺秘要方》에서 다른 약들과 配伍되어 外風으로 인한 腰痛, 痺證, 脚氣 뿐만 아니라 內風으로 인한 角弓反張, 半身不遂, 등을 치료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하지만 羌活은 독활과 비교할 때 폭 넓게 사용되지는 않았다.

대표처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Table 2. 참조)

1) “一名羌活, 一名羌青, 一名護羌使者”, “主風寒所擊, 金瘡止痛, 奔腸, 癰瘡, 女子疝瘕.”
 2) 此州郡縣并是羌活, 羌活形細而多節軟潤, 氣息極猛烈. 出益州北部, 西川爲獨活, 色微白, 形虛大, ……《中華本草》인용

3) “主治諸賊風, 百節痛風無舊新者.”《名醫別錄》
 4) “獨活 能治中諸風濕冷, 奔喘逆氣, 皮膚苦痒, 手足攣痛, 勞損, 主風毒齒痛” “羌活 能治賊風, 失音不語, 多痒血癩, 手足不遂, 口面歪邪, 遍身瘡痺”《藥性論》
 5) 羌活形細……爲用亦相似而小不如.《新修本草》

Table 2. 《備急千金要方》과 《外臺秘要方》에서 獨活과 羌活이 사용된 대표처방

문헌명	처방명	조성	주치
備急千金要方	獨活寄生湯(6)	獨活, 桑寄生, 杜仲牛膝, 細辛, 秦艽, 茯苓, 桂心, 防風, 川芎, 人蔘, 甘草, 當歸, 芍藥, 乾地黄	肝腎不足으로 인한 腰腿冷痛, 酸軟無力, 屈伸不利
	甘草湯(7)	甘草, 桂心, 芎藭, 麻黃, 當歸, 芍藥, 人蔘, 附子, 側子, 獨活, 防己, 生薑, 石膏, 茯神, 白朮, 黃芩, 細辛, 秦艽, 防風, 菊花, 淡竹歷	風으로 인한 手足枯細, 面口歪僻, 精神不定, 言語倒錯
	倉公當歸湯(8)	當歸, 防風, 獨活, 附子, 細辛, 麻黃	賊風, 口噤角弓反張瘳者
	前件湯(9)	天門冬, 澤蘭, 大黃, 升麻, 羌活, 桑寄生, 防風, 人蔘, 黃耆, 熟地黄, 白芷, 通草, 黃芩, 枳實, 五味子, 茯神, 天雄, 芎藭, 當歸	乳癰
外臺秘要方	獨活犀角湯(10)	獨活, 犀角, 石斛, 丹蔘, 側子, 防風, 防己, 芎藭, 生薑, 當歸, 芍藥, 茯苓, 桂心, 甘草	治脚氣毒衝心變成水身體遍腫
	芎藭湯(11)	麻黃, 芎藭, 白朮, 吳茱萸, 薯蕷, 防風, 枳實, 羌活, 蒺藜子, 烏喙, 甘草, 生薑	主面上及身體風搔痒

4. 宋元時期

宋元時期에 의학의 발전에 따라 두 약물의 분류는 더욱 확연해졌다. 초기에는 形態와 產地 등으로 간단히 분류를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效能까지도 세세히 비교하였다.

蘇頌의 《本草圖經》에서는 “文州獨活”, “茂州獨活”, “鳳翔府獨活” 세 幅의 獨活 그림과 “寧化軍羌活”, “文州羌活” 두 幅의 羌活 그림을 기재 하였다. 獨活의 세 幅의 그림으로 당시에 獨活의 來原이 傘形科만이 아닌 여러 가지 식물임을 알 수 있고, 두 幅의 羌活 그림으로 당시 사용 했던 羌活은 傘形科 식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서적에서는 두 약물의 形態와 色, 產地를 구분하였으며 吐法에 羌活의 사용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지금 사람들은 紫色이고 마디가 치밀한 것은 羌活로 여기고, 黃色에 塊가 있는 것은 獨活로 여긴다.”, “대개 이런 약물은 두 種類가 있다. 西川 것은 黃色에 꿀 같은 향이 나는 것이고 隴西 것은 紫色이고 秦隴人은 山前獨活 이라 부른다. 古方은 獨活만 사용했지만 지

금은 獨活뿐만 아니라 羌活도 사용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吐法에 羌活 五大兩에 물 一大斗를 넣고 달여서 五升을 취한다(12).”⁶⁾

唐慎微는 《證類本草》에 獨活과 羌活의 앞선 本草書籍의 내용을 정리하였는데 羌活을 獨活의 附篇에 함께 기술하였다. 그리고 두 약을 모두 風을 치료하는 약으로 분류를 했고, 특히 獨活은 “微溫하고 風으로 인한 四肢無力拘急을 치료한다”⁷⁾ 하여 舊風濕痺를 치료하는 약으로도 분류 되었으며 齒痛에 효과가 있는 약으로도 분류되었다.(13)

《湯藥本草》에서 王好古는 獨活을 足少陰腎經藥라 하였고, 羌活을 太陽經本經藥으로 규정하고 두 약을 아래와 같이 상세히 비교하였다. “羌活은 足太

6) “今人以紫色而節密者爲羌活, 黃色而作塊者爲獨活”

“大抵此物有兩種: 西川者, 黃色, 香如蜜; 隴西者, 紫色, 秦隴人呼爲山前獨活. 古方但用獨活, 今方既用獨活而又用羌活, 茲爲謬矣”

“吐法用羌活五大兩, 以水一大斗, 煎取五升……”

7) “微溫治風四肢無力拘急”

Table 3. 宋元時期 獨活과 羌活이 쓰여진 처방

문헌명	처방명	조성	주치
內外傷辨	羌活勝濕湯(15)	羌活, 獨活, 藁本, 防風, 炙甘草, 蔓荊子, 川芎	外感風寒 兼 風邪로 인한 惡寒, 發熱, 頭痛, 全身肢節酸痛
楊氏家藏方	蠲痺湯(16)	當歸, 羌活, 姜黃, 白芍藥, 黃旗, 防風, 甘草	風濕으로 인한 身體煩疼, 項痺痛重, 舉動限難, 手足冷痺, 腰腿沈重, 筋脈無力
濟生方	羌附湯(17)	羌活, 附子, 白朮, 甘草	治風濕相搏, 身體疼煩, 掣痛不可屈伸, 或身微腫不仁
聖濟總錄	羌活湯(18)	羌活, 獨活, 羚羊角, 麻黃, 防風, 旋復花, 人蔘, 白茯苓, 當歸, 麥門冬, 杏仁	治中風舌強不得語, 手足舉動不得
	羌活湯(19)	羌活, 防風, 秦龜, 芎藭, 當歸, 牛膝, 附子, 大腹皮, 桃仁, 生薑, 大棗,	治白虎風痛甚如契
	杜冲湯(20)	杜冲, 羌活, 川椒, 秦龜, 石斛, 續斷, 括樓根, 丹皮, 白芍, 五加皮, 當歸, 桂心	勞動傷腰卒痛

陽厥陰少陰藥이다. 獨活과 구분되지 않는 두 종류였으나 후대 사람들이 羌活을 쓸때는 鞭節을 사용했고 獨活을 쓸때는 鬼眼을 사용했다. 羌活은 약성이 웅장하고 獨活의 약성은 약하다. 고로 웅장한 羌活은 太陽經으로 들어가고 약한 獨活은 少陰經으로 들어간다.”8)(14)

위의 내용에서와 같이 宋元 時期는 羌活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歸經을 정확히 밝혔으며 강활의 發汗解表 작용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시기로 의미가 크다. 宋元 時期의 獨活과 羌活이 쓰여진 주요처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Table 3. 참조)

Table 3에서 보면 이전 시기보다 羌活의 활용이 광범위 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聖濟總錄》에는 여러 가지의 羌活湯이 기재 되어 있는데, 다른 약

Table 4. 明清時期 醫家들의 獨活과 羌活의 비교

의가	서적명	내용
黃宮繡	本草求真(21)	羌活은 上焦로 움직여서 위를 이롭게 하고 游風頭痛, 風濕骨節疼痛을 치료할 수 있다. 獨活은 下焦로 움직이고 아래를 이롭게 하고 伏風頭痛, 兩足濕痺를 치료할 수 있다. 두 약이 비록 風을 치료하지만, 각각 쓰임에 다름이 있으므로 세세히 살펴야 한다.9)
嚴洁	得配本草(22)	羌活은 營衛의 發散시키고, 獨活은 營衛의 氣를 따뜻하게 해 준다; 羌活은 發表의 효능이 있고, 獨活은 助表의 효능이 있다10)
張山雷	本草正義(23)	羌活은 上部의 風寒濕邪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데 獨活의 전문적인 下半身을 치료와는 반드시 나누어 사용해야 그 기능을 잘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모든 風濕寒邪로 인한 外瘍은 肌肉筋骨에 나타나는 것으로 역시 몸의 半以上, 半以下를 分別하여 羌活, 獨活로 나누어 치료한다11)

8) “羌活足太陽厥陰少陰藥也, 與獨活不分二種, 後人用羌活多用鞭節者用獨活多用鬼眼者, 羌活則氣雄獨活則氣細, 故雄者入足太陽細者入足少陰也.”

9) 羌行上焦而上理, 則游風頭痛, 風濕骨節疼痛可治; 獨行下焦而下理, 則伏風頭痛, 兩足濕痺可治. 二治雖屬治風, 而用各有別, 不可不細審耳

Table 5. 明清時期的 羌活과 獨活이 쓰여진 처방

문헌	처방명	조성	주치
症因脈治	獨活蒼朮湯(24)	獨活, 蒼朮, 防風, 細辛, 川芎, 甘草	少陰寒濕腰痛, 不能轉側
	獨活細辛湯(25)	獨活, 細辛, 川芎, 秦艽, 生地黄, 羌活, 防風, 甘草	治足少陰頭痛
證治準繩	獨活散(26)	羌活, 防風, 川芎, 獨活, 石膏, 荊芥, 升麻, 生地黄, 葛根, 細辛, 白芷, 黃芩, 甘草, 芍藥	治風毒齒痛
赤水玄珠	通氣防風湯(27)	羌活, 獨活, 藁本, 防風, 甘草, 川芎, 蔓荊子	治脊痛項強, 腰似折項似拔者, 此足太陽經不通也
玉機微義	羌活防風湯(28)	羌活, 防風, 甘草, 川芎, 藁本, 當歸, 芍藥, 地榆, 細辛	治邪初在表

물들과 배오를 통해 여러 가지 증상에 효과가 있음을 서술했다. 또한 羌活의 성질이 猛烈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獨活이 쓰여진 처방들과 비교를 했을 때 비교적 빠르고 사기가 성한 實證에 많이 사용되었다. 宋元時期는 현대 本草學과 비슷한 수준으로 두 藥物을 분류했고 羌活과 獨活의 적용증을 확실히 구분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明清時期

明清時期的 醫家들은 獨活과 羌活의 새로운 효능을 찾는 것보다 두 약물의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서 더 세세하게 문헌에 기재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Table 4. 참조)

明清時代의 羌活과 獨活을 포함하고 있는 처방은 내용면에서나 수량 면에서 뚜렷한 증가를 보였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Table 5. 참조)

결론

獨活과 羌活은 兩漢時期에는 구별이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었지만, 魏晉南北朝 時期에 陶弘景이 產地와 形態로 두 약을 나누기 시작했다. 隨唐時期에 이르러 《藥性論》에서 처음으로 獨活과 羌活을 효능으로써 구별하였다. 唐代 著名한 醫家 孫思邈의 저서인 《備急千金要方》과 《外臺秘要方》에서 羌活과 獨活이 포함되어 있는 처방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唐代 時期에부터 두 약을 產地, 形態뿐만 아니라 效能 상으로도 구분하여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사례로 볼 수 있다.

中國 醫學의 눈부신 발전이 있었던 宋元時期는 羌活의 效能을 자세히 밝힌 중요한 時期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시기에 羌活의 歸經을 糾明했고 現代 本草學에서와 같이 發汗解表의 效能을 가지고 있어 風寒濕으로 인한 表證을 치료하는 약으로 命名하였다. 이후 明清時期的 풍부한 文獻에서는 이전 보다 더욱 더 발전하여 두 약을 구별했는데 邪氣가 병을 일으키는 위치에 따라서 약물 선정하게 하는 등 오늘날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단계까지 羌活과 獨活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였다.

10) 羌活散營衛之邪, 獨活溫榮衛之氣; 羌活有發表之功, 獨活有助表之力

11) 羌活專主上部之風寒濕邪, 顯與獨活之專主身半以下者截然分用, 其功尤捷. 而外瘍之一切風濕寒邪, 著于肌肉筋骨者, 亦分別身半以上, 身半以下, 而以羌獨各爲主治.

참고문헌

1. 馬繼興主編, 神農本草經輯注, 人民衛生出版社, 1995年 12月. 64p
2. 國家中醫藥管理局, 中華本草5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9년 9월. 877p
3. 陶弘景, 名醫別錄, 人民衛生出版社, 1986年 6月. 38p
4. 甄 權, 藥性論,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6年 9月. 22p
5. 蘇 敬, 新修本草,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年 9月. 93p
6.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欽定四庫全書 3卷, 大星文化社, 1995年 2月 10日. 607p
7.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欽定四庫全書 3卷, 大星文化社, 1995年 2月 10日. 301p
8.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欽定四庫全書 3卷, 大星文化社, 1995年 2月 10日. 302p
9.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欽定四庫全書 3卷, 大星文化社, 1995年 2月 10日. 732p
10. 王燾曾, 外臺秘要, 欽定四庫全書 4卷, 大星文化社, 1995年 2月 10日. 614p
11. 王燾曾, 外臺秘要, 欽定四庫全書 5卷, 大星文化社, 1995年 2月 10日. 329p
12. 蘇 頌, 本草圖經,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4年 5月. 98p~99p
13. 唐慎微, 證類本草, 欽定四庫全書 8卷, 大星文化社, 1995年 2月 10日. 40-53p
14. 王好古, 湯液本草, 欽定四庫全書 13卷, 大星文化社, 1996年 2月 20日. 94p
15. 李 杲, 內外傷辨,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2年 7月. 30p
16. 楊 倓, 楊氏家藏方, 방제학, 중국중의약출판사, 2003年 5月. 316p
17. 嚴用和, 濟生方, 欽定四庫全書 11卷, 大星文化社, 1995年 2月 10日. 472p
18. 趙 佶, 聖濟總錄, 欽定四庫全書 7卷, 大星文化社, 1995年 2月 10日. 19p
19. 趙 佶, 聖濟總錄, 欽定四庫全書 7卷, 大星文化社, 1995年 2月 10日. 29p
20. 趙 佶, 聖濟總錄, 欽定四庫全書 7卷, 大星文化社, 1995年 2月 10日. 226p
21. 黃宮繡, 本草求真, 木斗土, 1999年 11月25日. 239p
22. 嚴 潔, 得配本草,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年 12月. 51p
23. 張山雷, 本草正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中華本草5卷 881p
24. 陳景明, 症因脈治,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7年 4月. 73p
25. 陳景明, 症因脈治,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7年 4月. 50p
26. 王肯堂, 證治準繩, 欽定四庫全書 36卷 大星文化社, 1995年 2月 10日. 614p
27. 孫一奎, 赤水玄珠, 欽定四庫全書 34卷 大星文化社, 1995年 2月 10日. 461p
28. 徐用誠, 玉機微義, 欽定四庫全書 30卷 大星文化社, 1995年 2月 10日. 461p